

청자 빚갈·산화·환원 등 소성과정 눈으로 확인

첨단 透視爐 강진박물관에 설치

(투시로)

국내 유일 연구용 가마...고품격 청자 양산 기대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가마 내부의 청자 소성 과정을 세밀히 관찰할 수 있는 첨단 투시로(透視爐)가 국내 최초로 강진군 청자박물관에 설치됐다.

이로써 온도변화에 따른 청자의 변색·크랙과정, 산화·환원과정 등을 육안과 모니터를 통해 점검할 수 있어 향후 수준높은 청자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군수 황주홍)과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5일 강진군수실에서 청자투시로 무상 임대

대계약을 체결했다.

이 연구용 투시로는 행남사 등 3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일본이 보유한 세계 유일의 투시로를 벤치마킹해 탄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은 일본측으로부터 설계도면과 제작기법 상의 노하우를 전수 받은 뒤 국내에서 가마 내 온도, 원격 모니터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외형은 일반 가마와 비슷하나 특수 유리를 통해 가마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설계됐고, 가마 외부에 설치된 카메라로 가마 내부를 찍은 자료를 모니터로 관찰할 수도 있다.

이 투시로는 광주·전남중기청이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달 중순 강진 청자박물관에 설치됐으며, 9월초부터 시운전에 들어갔다.

김광수 광주·전남중기청 시험연구과장은 "이번 연구용 투시로 설치를 계기로 소지(素地·도자기의 원료흙)와 유약 등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해져 고품질의 청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순화 강진 청자박물관장은 "지금까지 일반인들은 물론 직접 청자제

작에 참여하는 도기장(陶器匠)까지도 가마 내부에서의 청자 소성 과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이제 유약을 바른 작품이 산화·환원과정을 거친 후 용점(融點)에 도달해서 청자빛으로 완성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도자산업 부문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투시로는 오는 8~16일 강진군 대구면 일대에서 열리는 제 12회 강진청자문화제를 통해 일반인과 관광객들에게 공개돼 체험문화용으로도 인기를 끌 전망이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녹차서 또 잔류농약 검출

식약청 87개제품 정밀조사

유명 마트에서 판매하는 녹차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됐다.

식물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중인 국산·수입산 녹차 87개 제품(36개 업체)에 대해 잔류농약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티엔에서 생산하는 신세계이마트 자체 브랜드 제품인 '이플러스'를 비롯해 '가루녹차'에서 농약 '클로르페나피르'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국산·수입산 86개 제품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국산 66품목 수입 21품목 녹차에 대해 이피엔과 파라치온 등 66종의 농약의 잔류농약을 정밀조사한 결과 신세계이마트 자체 브랜드(속칭 'PB상품') 상품 '이플러스'를

가루녹차(유통기한 2009.7.13)에서 클로르페나피르가 7ppm(백만분의 1)이 검출돼 기준치(3ppm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품에서 검출된 수준은 일반인의 녹차 섭취량 및 해당 성분의 독성을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할 때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지난 11일 발표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식약청은 "농산물 재배의 특성상 같은 산지라도 농약 살포량, 살포시기, 생엽 수확시기, 기후 및 일기변화, 휴약 기간이 매년 달라 검사기관별, 검사시기별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며 녹차 제조과정에서도 충분한 세척 여부, 저장기간 등에 따라라도 농약잔류량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앞줄 오른쪽 네번째)는 한국정보통신기술대학(학장 구호환·앞줄 오른쪽 첫번째)과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생동마을(대표 봉석근·앞줄 오른쪽 두번째)을 '9월의 1사1촌상' 수상기관으로 선정, 4일 시상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앞줄 오른쪽 네번째)는 한국정보통신기술대학(학장 구호환·앞줄 오른쪽 첫번째)과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생동마을(대표 봉석근·앞줄 오른쪽 두번째)을 '9월의 1사1촌상' 수상기관으로 선정, 4일 시상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기아차 정규-비정규직 노조 통합

기아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와 통합해 단일노조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측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3일 '1사1조직 원칙'에 따라 급속노조 기아차지부와 도급·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통합하는데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단일 노조를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도급·협력업체 직원들이 원청업체 노조와 통합해 단일노조를 구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아차 노조 정호호 정책실장은 "통

합으로 임금인상 등 노사협상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진행하게 됨에 따라 지난달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파업도 끝내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앞으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처우개선 등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측은 "도급·협력업체 직원들은 엄연히 사용자가 따로 있는데 기아차와 협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일"이라며 "앞으로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임금협상, 처우개선 등에 교섭주체로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농림부 '농가등록제' 고려농 구조조정 아니다

국립농산물관리국립원 전남지원은 지난 4일자 본보 '농가등록제는 농민 고려장'이라는 보도와 관련, '농가등록제는 직접지불제 등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의 기반이 되며, 특정연령 이상의 고려농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고 5일 해명했다.

전남지원은 또 "향후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의 차별적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직불제 등 농업정책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위주로 운영, 규모화와 함께 농가단위 직불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8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정승기 청수식품 대표

기능성 소금 미·일 수출 확대

年 3천만 생산... 매출 25억

구운소금 국내 60% 점유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5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8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시상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신형락 광주일보 편집국장, 정 대표, 박춘근 광주·전남지방중기청청장.

"최고의 품질, 위생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수상을 계기로 새로운 제품개발과 해외수출에 더욱 주력할 계획입니다."

5일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주는 '8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을 수상한 기능성 소금 전문제조업체인 청수식품(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청계농공단지) 정승기(66) 대표는 "기존의 일본 뿐 아니라 미국, 유럽쪽으로 수출선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청수식품은 같은 해 일본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까지 매년 120t(5억원) 이상의 제품을 수출해왔다. 특히 구운소금은 일본 식품사인 'Qi power salt'의 동명브랜드로 도쿄의 백화점 식품코너 등에서 날개돋친 듯 팔리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제 1회 SALT EXPO'에 참가, 미용소금이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유럽수출을 타진한 데 이어 최근 미국 LA쪽에 500만 원 어치의 소금을 판매하는 등 수출선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간 3천t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청수식품의 대표주자는 신안군 염전에서 나는 100% 국산 천

일염을 섭씨 800도 이상에서 소성한 구운소금으로, 현대 대상(주)에 '청정원구운소금'이라는 상표를 달고 국내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이 제품은 국내 구운소금 시장의 65%를 점유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밖에 무안군의 특산물인 양파와 연근을 첨가물로 사용한 식용소금, 다이어트식품인 다시마추출물을 첨가한 식용소금, 피부를 아릅답게 가꾸주는 각종 미용소금 등도 국내외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연구개발에 대한 정 대표의 집념에서 비롯했

다. 청수식품은 2002년 중기청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이래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ISO 9001, ISO14001 인증을 획득했다.

또 국내 유일의 소금연구기관인 목포대 천일염생명과학연구소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올 7월에는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인 '천일염 및 염생식품 산업화 연구과제'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직원 19명의 청수식품은 2005년 16억원, 2006년 18억원에 이어 올해는 25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추석 선물 트렌드는 '건강&웰빙'

광주지역 백화점 마케팅 준비 분주

2007년 추석 선물 트렌드가 '건강& 웰빙'으로 모아지면서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관련 마케팅 준비에 분주하다.

광주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5일 "건강& 웰빙"을 주제로 올해 추석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친환경 관련 선물 세트와 올리브유, 와인 등 웰빙 상

품 출하 물량을 지난해 추석에 비해 30% 이상 늘렸다.

신세계는 직접 생산지와 품질을 선별하고 철저한 품질 확인 및 검사를 해 안전성을 확보, '5 star'품목으로 명명한 한우, 신고배, 사과, 굴비, 전복, 수삼, 멸치, 왕망고, 자연송이, 자연산 돌미역, 멜론 등 11개 품목 판매에 집중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올해 추석 이 웰빙을 테마로 하면서 가족이 나 친지와 정을 나눌 수 있는 실속형 선물을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 기업체보다는 일반 소비자 대상 마케팅에 주력하기로 하고 우선 대표적 웰빙 상품인 홍삼의 물량을 작년 추석보다 50% 정도 더 확보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신을 고품격 노동 최고의 VIP로 모십니다.

34+48

www.kaltour.com

무엇보다도 KALTOUR (위신여행리조트) 1577-9033

제주도	초특가 한라산 동면	129,000원
제주도	초특가 요도여행	149,000원
제주도	초특가여행 패킷 패키지	
제주도	초특가호텔여행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1 (신사동) KALTOUR 고객센터 02-552-1111